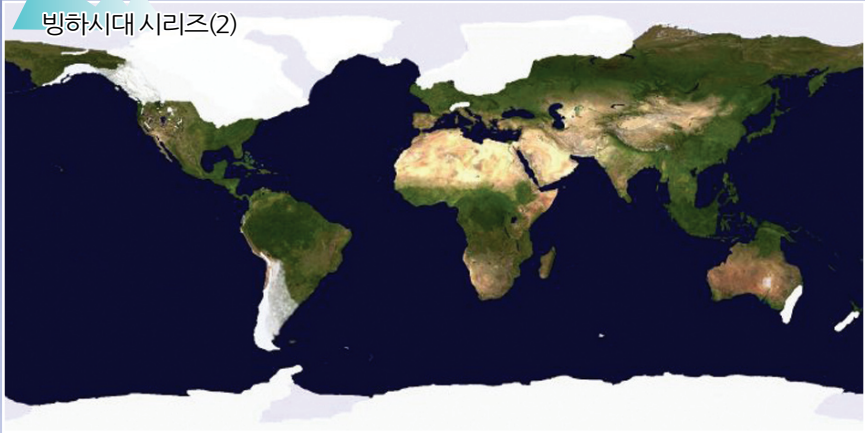


CREATION TRUTH

빙하시대 시리즈(2)



빙하시대가 수 만년 동안 지속되었는가?

이전 호 칼럼

에서 여러 번의 빙하시대를 가정하는 것이 증거와 어떻게 불일치하며, 한 번의 빙하시대의 조건도 어렵기 때문에 여러 번의 빙하시대는 더욱 희박하다는 점에 대하여 다루어보았다. 이번 호에는 그 동일한 연장선에서 빙하시대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나누어 보려고 한다.

오랜 지구 나이를 믿는 과학자들이 빙하기가 수백만 년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이렇게 오래되었다고 여기는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지구가 오래되었다는 그 자체의 패러다임일 것이다. 이들은 한 쌍의 밝은 색과 어두운 색의 얼음 층이 1년 동안 쌓였다고 추정하여 층수를 헤아려 경과된 년 수를 알 수 있을 것으로 여긴다(덧면 사진). 실제로 이런 모습은 겉보기에 관찰되며 화학적 변화를 보이는 듯하다. 과학자들은 빙하를 수직으로 뚫어서 얼음 기둥을 뽑아내는 얼음코어(덧면 사진)를 통해 그 얼음 층의 개수를 세어 그린란드와 유럽의 경우 최대 한 160,000년 정도된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과연 이 하나의 층이 한 해를 나타내는지 한 해 동안 여러 번의 눈이 쌓인 것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즉 이 얼음 층들의 모습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가 가장 어려운 문제가



다. 어떤 경우 대규모 눈보라나 눈 더미가 한해 동안 여러 층으로 쌓이는 것이 가능하며, 실제로 그렇다. 단지 며칠 동안의 짧은 기간에도 얼음 층에 변화된 다양한 얼음 층을 만든다. 또한 이들이 수주에서 수개월까지 지속될 수도 있다.

더군다나 야외에서 길보기로 볼 때 빙하의 그 얼음 층은 일반적으로 아주 넓고 평행하다. 과연 이것이 1년을 의미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평행할 수 있을까? 한 해를 겪으면서 매년 여름 동안 눈들이 그렇게 평평하게 녹을 수 있을까?

과학자들이 빙하의 얼음이 1년에 쌓이는 층(annual layer)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는 화학적 방법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산소 동위원소 방법이다. ^{18}O (산소 18)과 ^{16}O (산소 16) 사이의 변화하는 양상에 근거한 방법이다. 원리를 보자면, 무거운 ^{18}O 를 가지고 있는 물(H_2O)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16}O 를 포함하는 물 분자보다 느리게 증발하지만 응결은 더 쉽게 일어나므로 바닷물 속에 포함된 있는 ^{18}O 가 대기로 증발되기 위해선 더 따뜻한 날씨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따뜻한 날씨에 쌓였던 눈은 높은 ^{18}O 를 포함하게 된다. 이를 근거로 과학자들은 얼음 속에 있는 ^{18}O 의 비율을 비교해서 높은 ^{18}O 를 가진 얼음 층은 여름에 쌓인 것이고 낮은 ^{18}O 를 가진 얼음 층은 겨울에 쌓인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즉 이런 기온과 동위 원소 비율의 상관관계는 기온이 내려갈수록 ^{18}O 의 농도도 함께 낮아짐을 지시한다. 실제로 여러 번의 빙기와 간빙기가 있었다고 하는 증거로 산소 동위원소 농도가 가장 많이 인용되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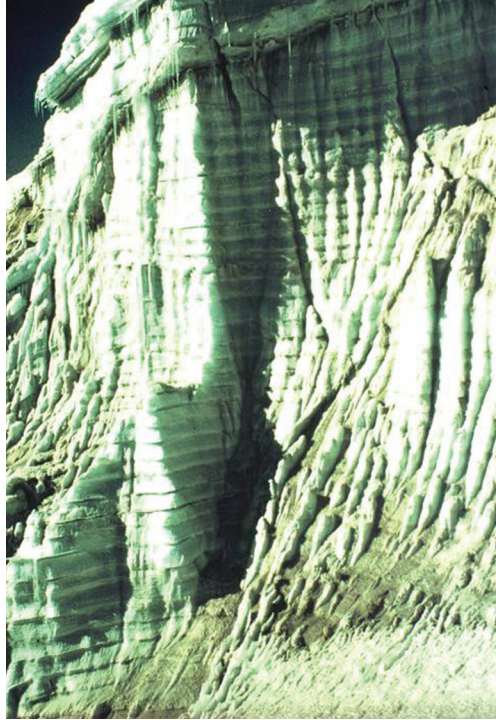
그러나 과연 이 산소 동위원소의 변화가 계절변화를 말해주는 것일까? 가장 큰 문제는 이 얼음 속에 있는 산소가 제자리에 머물러 있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얼음 속에서 흩어져 버린다. 특히 계속 쌓이는 상부의 눈이 무거워짐에 따라 하부에 있는 눈은 용융되었다가 다시 얼음으로 재결정되는 것이 반복되는데 이때 동위원소들이 움직이지 않고 제자리에 그대로 있을 것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추측이다. 그러므로 동위원소 비율에 의한 얼음 코어의 연대측정은 이론적으로는 흥미로울지 모르나 실제 적용하기에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이들의 동위원소가 얼음 속에서 이동된다는 것은 학자들 사이에 오래 동안 지적되었던 심각한 문제점이었다.

앞으로 칼럼을 통해 차차 언급되겠지만, 창조과학자들은 빙하시대는 노아홍수에 이어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홍수 후 200년경부터 빙하시대에 도래했으며 이때 광역적인 화산활동이 주된 역할 중에 하나로 본다. 그러므로 ^{18}O 가 다양한 변화를 보여주는 것은 불안정한 대기로 인해 성층권 안에 있는 화산재의 다양한 양의 영향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얼음코어를 통해 연대를 보정하는 방법인데, 빙하시대 이론 중에 하나인 ‘천문학적 빙하기 이론’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미 천문학적 이론은 학자들 사이에 빙하기에 대하여 바른 이론이 될 수 없음이 여러 차례 지적되어왔다. 즉 빙하의 오랜 연대는 그릇된 천문학적 주기와 오랜 지구나이의 패러다임을 적절히 손질한 순환논리의 한 예일 뿐이다.(천문학적 이론은 다음 호에서 다룰 것이다)

얼음 층이 짧은 시간에 형성된다는 가능성에 대한 실제 예가 있다. 1942년 2차 세계대전 당시 연료가 부족하여 8대의 전투기와



얼음 층

폭격기를 그린란드 동해안으로부터 17마일 떨어진 지역에 버렸다. 수십 년이 지난 1981년 당시 대원들이 그 항공기들을 회수할 수 있을지를 의뢰함에 따라 눈 아래 묻혀있는 비행기를 찾기 시작했다. 금속 탐지기 등을 이용하여 수색을 했지만 찾지 못하다가 수년이 지난 1988년 그 비행기들 중에 하나를 발견했는데, 자그마치 78m 두께의 얼음 아래에서 발견한 것이다! 46년 만에 26층 건물 높이인 78m의 얼음이 쌓인 것이다. 그러면 매년 약 1.7m의 두께의 얼음이 형성되었다는 것이며, 이를 눈으로 환산하면 매년 약 5m에 해당하는 강설이다. 더군다나 당시 그곳에 있던 로버트 칼딘은 그 비행기 위에 수백 층의 얼음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만일 이 비행기를 보지 않고 얼음 층의 개수만을 가지고 연대를 정했다면 수백 년 걸렸다고 말했을 것이다. (실제로 오늘날에도 그린란드와 남극에서 국부적으로 강설에 의해 얼음이 형성되기도 한다)

빙하시대의 연대를 결정할 때 얼음 층으로 결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심적 사고는 지질과정이 오늘날과 똑같은 속도로 과거에도 일어났다는 동일과정설적 가정인 것이다. 이는 빙하시대를 해석하는데도 똑같이 적용되는데 빙하가 오늘날과 같이 과거에도 매우 천천히 형성되었고 천천히 녹았을 것이라는 가정이다. 이 가정에서만 벗어난다면, 빙하의 증거들은 빙하시대가 수백만 년 동안 반복되었다는 생각을 쉽게 버리게 한다.



이재만 부회장
지질학, 과학교육학



방주를 통해 살펴 본 성경 기록의 신뢰성

2차 세계대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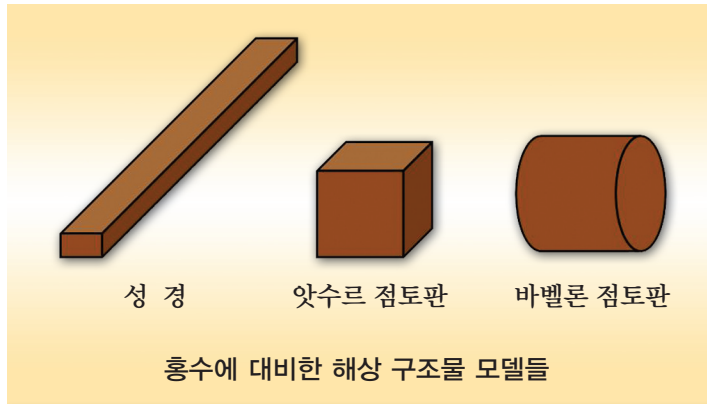
때 근동지방에서 발견되어 보존되어 왔던 약 3700년 전으로 추정되는 한 바벨론의 점토판이 최근(2010년 1월) 대영박물관(British Museum)의 핑켈(Finkel) 박사에 의해 해독 되었다. 그 내용중에 창세기의 노아홍수 및 방주와 유사한 내용이 있는데, 예를 들면 신이 아트람-하시스(수메르판 노아)에게 생물들을 홍수로부터 보전하기 위해 갈대로 원통형의 배를 만들라고 한 것이다. 그 바벨론판 방주는 재료의 강도에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형상 자체도 조선공학의 상식에 맞지 않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속의 학자들은 그 점토판이 모세 이전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아마 성경의 창세기가 그것을 모방했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창세기에 관한 내용들의 일부가 기록이나 구전을 통하여 노아, 아브라함(약 4000년 전)과 요셉 등을 거쳐 모세에게까지 전해졌을 가능성을 철저히 배제한 주장이다. 고고 문서학의 대가 알브라이트(Albright)박사는 “창세기의 기록은 고고 언어/문서학적으로 볼 때 메소포타미아의 어떤 고대기록보다 오래되었다”고 단언한 바 있다.

한편, 근동지방에서 발견된 또 다른 고대 점토판 중의 하나인 앗수르 점토판(19세기 중엽에 니느웨에서 발견)에 기록되어 있는 길가메쉬의 서사시 중에도 큰 홍수와 방주이야기가 나온다. 홍미를 계도 그 서사시에 나오는 방주는 정육면체(cube)이다. 이러한 모양의 방주는 복원안정성(restoring stability)이 극도로 나쁘기 때문에 파도가 조금만 일어도 견디지 못하고 쉽게 전복되고 만다.

조선 공학적으로 볼 때 상식에 맞지않는 얼토당토 않은 설계이다.

하지만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여 사람의 손을 통해 만든 인류 최초의 대형 구조물이다. 과연 그 내용이 앞에서 언급한 예처럼 사람의 머리에서 임의로 변개-왜곡시킨 스토리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판별할 수 있을까? 그 방주에 관한 내용의 신뢰성만 보아도 금방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개발되어온 모든 조선공학기술과 이론을 모두 집대성하여 노아홍수와 같은 거친 해상상태에서 살아남기 위해 방주를 설계한다면 아마도 창세기에 기록된 장-폭-고 비율인 6:1:0.6 (150m-25m-15m)과 아주 근사한 비율이 될 것이다.

1993년 한국의 선박연구소에서 13척의 다른 장-폭비를 갖는 방주의 모형을 만들어 큰 파도에서의 복원성 및 안정성을 실험한 적이 있었다. 방주의 무게 중심은 성경에 정확히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각각의 경우마다 동일하게 가장 합리적인 두 위치로 가정하였다. 각 경우마다 구조 안정성 (structural integrity), 복원 안정성 (stability against capsize), 내항 안정성(survivability against waves)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검증하였다. 그 결과, 노아의 방주와 같은 장-폭-고 비율이 종합



적으로 가장 우수한 설계임이 입증되었다. 만일, 폭이 너무 커지게 되면 복원성은 증가하나 내항성이 나빠지게 되며 외력이 또한 증가하여 구조적으로도 문제가 생긴다. 반대로 폭이 너무 줄어들게 되면 복원성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된다. 한가지 흥미로운 점은 배의 건조에 대해 어떠한 지식도 경험도 없었던 노아가 어떻게 그렇게 최적의 설계로 배를 건조할 수 있었겠느냐는 것이다. 성경에 나오는 답은 아주 간단하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그대로 순종했을 뿐이라고 한다.

이와같이 방주에 관련된 내용만을 근거로 하더라도 우리는 어느 기록이 인간의 머리에서 만들어 지거나 변개/왜곡된 것이고, 어느 기록이 참역사적 사실을 성령님의 인도하에 신뢰할 수 있게 기록된 것인지를 분명하고도 쉽게 구별해 낼 수 있다. 과학의 여러 분야에 걸쳐 복수박사학위를 가진 윌터스미스(A. E. Wilder-Smith)는 그의 『성경의 신뢰성(The Reliability of the Bible)』이라는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다. “성경은 과학교과서도 아니고 과학적 전문 용어로 쓰여 지지도 않았다. 하지만 성경은 여러 과학적 현상들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평범한 어휘들로 명확하고도 무오하게 기록하였다.” 창세기의 기록이 인간이 만들어 낸 신화가 아닌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역사적 사실임에 틀림 없다.



ACT News

탐사여행 | 창조과학학교 | 세미나

유학생 탐사여행

지난 1월 초 7차 유학생 창조과학 탐사여행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이번 탐사여행은 북미 16개 대학(한국 2개)에서 52명이 참석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대기 명단에만 참석하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가능하면 여러 학교에서 골고루 참석하도록 한 학교(교회)에서 7명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탐사여행 내내 질문이 이어졌으며 말씀과 증거를 통해 답을 얻었습니다. 마지막 정리강연 후에는 믿음이 없었던 학생들에게서 믿음이 생기고, 이미 크리스천이었던 학생들이 주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 각각의 마음은 '간증'란에서 함께 공감할 것입니다.

유학생 탐사여행이 끊어지지 않고 진행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미래가 걸려있는 젊은 세대에게 진화론에서 벗어나 믿음의 시작인 성경에 대한 확신과 함께 앞으로의 삶을 계획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제공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순복음 라스베가스교회(담임목사 강일진)에서 전폭적인 후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8월 첫째 주 8차 유학생 탐사여행이 출발합니다. 창조과학선교회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창조과학학교

제 16기 서부지역 창조과학학교가 1월 22일 새한교회(담임목사: 정세훈)에서 열렸습니다. 매주 금요일(7:00-9:00)에 모이며 3월 26일까지 10 주 동안 계속 됩니다. 이번 16기는 성도수가 많은 대형교회가 아닌 중형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창조과학의 중요성을 알고 창조과학학교를 유치하게 된 것이 참으로 감사할 일입니다. 19명이 등록한 가운데 첫 시간 인류의 기원 강의를 시작으로 열린 질문들과 함께 시작 되었습니다. 새한교회는 매년 창조과학학교를 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중소형 교회들에서도 창조과학학교가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고등부, 주일학교 교사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카고 지역의 제10기 중부 창조과학학교는 부활절 후 열리게 될 예정입니다. 문의: 847-845-5368/630-400-6114.

모집 | 창조과학 탐사여행

탐사여행이 주로 교회나 단체에서 신청을 하지만 창조과학선교회에서 단독으로 모집하거나 단체 인원이 적을 경우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본인뿐 아니라 주위 분들께도 추천 바랍니다. 아래 일정을 보시고, 창조과학선교회 사무실로 연락해 주세요.

3월 16-18일: 만나선교회 주관으로 출발하며 그랜드캐년, 세도나, 모하비사막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배웁니다. 일반인도 참석할 수 있습니다.

6월 10-12일: 빙하시대 탐사여행. 요세미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노아홍수 후기부터 빙하시대까지 배울 수 있는 탐사여행입니다. 요세미티의 가장 멋진 절경을 볼 수 있는 6월에 경치와 함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볼 수 있습니다.

6월 21-23일: 2차 Fuller 신학생 탐사여행. ANC 온누리교회(유진소 목사)에서 신학생들을 위해 전적으로 후원하여 이루어집니다. 신학생들만 참가 가능합니다. 자격기준과 참가비는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7월 15-17일: 그랜드캐년 탐사여행. 창조과학선교회에서 매년 한번 모집하는 그랜드캐년, 세도나, 규화목국립공원, 모하비 사막을 중심으로 이어집니다.

8월 2-4일: 8차 유학생 탐사여행. 유학생만이 참석가능하며 자격조건과 참가비는 홈페이지와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세미나

지난 1월 인랜드 순복음교회(담임목사 고헤렌), 한 마음 침례교회(심석보), 다솜교회(이태종), 주님의 빛교회(주혁로), 엘파소 열린문교회(하태수), 로체스터 온누리교회(김진규), 나성교회(정동석), 산타 마리아 믿음 장로교회(정성호)에서 창조과학세미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엘파소 열린문교회 세미나에서는 엘파소지역 목사님들만을 위한 특강시간을 가져 창조과학 사역의 중요성을 심도있게 나누는 기회를 가졌습니다(사진).

엘파소 지역에서는 오는 3월 19-21일 김낙경 박사님의 인도로 2세들을 위한 창조과학 캠프가 열립니다. 1세, 2세, 목회자 모두가 창조과학을 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동용 박사는 본인이 일하고 있는 직장 내 성경공부 그룹에서 지난 1월 21일부터 8주간에 걸쳐 창조과학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미국 사람들이지만 아직 창조과학에 접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각 교회 새신자 프로그램과 국제개혁대학교 및 베데스다대학교 강의(강사: 최우성), 매주 목요일 4:00 미주복음방송의 라디오 칼럼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모가 작은 교회들도 적극적으로 세미나를 초청하시도록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해 계획된 창조과학 세미나는 뉴스레터 뒤 표지와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Love Creation 과 한국방문

이제만 부회장은 오는 4월 한 달간 일본과 한국을 방문합니다.

4월 첫 주는 Love Creation에 강사로 초청되었는데, 한동대학교 김영길 총장님과 일본 창조과학회 회장이신 우사미 미노르와 함께 세미나를 인도합니다. 지난 두 번의 집회로 많은 일본인들이 이 성경으로 돌아옴에 따라 이번 집회는 보다 규모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 말에는 창조과학탐사여행에 일본에서 직접 참여할 계획이 있기도 합니다. 일본인들이 이 진화론에서 벗어나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기간은 한동대학교와 전주대학교, 그리고 교회들에서 순회 세미나를 가질 예정입니다.

Internship

올 해 창조과학선교회의 많은 관심은 더 많은 창조과학 보급 기회와 새로운 사역자들입니다. 그 일환으로 3~6개월 정도의 인턴 제도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신된 지원자들이 준비 되고, 이들에게 필요한 재정도 준비되어, 지금보다 더욱 왕성하게 활동할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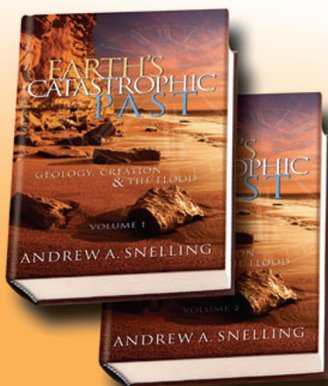
현대 교회의 최소한의 요구

과학자 리비히(Liebig)가 발견한 “최소량의 법칙”이란 것이 있다. 이 법칙은 한 생물이체가 성장하는 데는 여러 가지 영양소가 필요한데, 그 중에 단 한 가지가 부족하면 다른 모든 영양소가 충분히 있어도 그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자랄 수 없다는 법칙이다.

지금 생명체인 교회에서 그 최소량은 무엇일까? 성경에 기록 된 창조와 역사를 바로 알고 믿는 일이다. 지난 Creation Truth에 『이미 떠나버렸다』 시리즈로 4 회에 걸쳐 소개한 것처럼, 진화론은 창조와 실제 역사를 왜곡하여 교회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필요도 느낄 수 없도록 만들어 유럽과 일본 교회를 비워버렸고, 미국 교회를 비우고 있고, 한국 교회도 그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복음은 인류의 기원, 동물과 식물들의 기원, 지구와 해와 별들의 기원, 지층과 화석의 기원, 그리고 죄와 타락 등, 현실적인 실체들에 대한 사실적인 이해가 없으면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운데 진화론은 그 사실들을 왜곡해 버렸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라고 질문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지금 우리 교회의 필요(성경대로 이 땅에서 일어난 일들을 믿는 것)를 지적하시는 것 같다. 이 시대는 교회의 최소한의 요구(필요)를 증대시킬 수 있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

최우성 박사



지구의 격변적 과거

Earth's Catastrophic Past

과학과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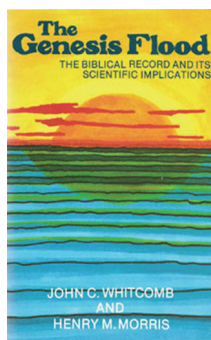
문제에 대해서도 성경을 신뢰할 수 있는가, 아니면 성경은 단지 영적인 진리만을 얻을 수 있는 책인가?

1961년 존 휘트콤(John Whitcomb) 박사와 헨리 모리스(Henry Morris) 박사가 『창세기 홍수(The Genesis Flood)』라는 책을 출판했는데, 이 책은 과학적 자료와 성경 기록을 조사하여 창세기에 기록된 지구역사가 사실이며, 믿을만하며, 역사적임이 분명하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ICR은 이 중요한 업적에 최신 연구를 보강한, 오랫동안 기다렸던, 책을 선보였다. 창조과학계에서 세계적 지질학자로 알려진 앤드루 스넬링 교수가 『지구의 격변적 과거(Earth's Catastrophic Past)』란 책에서 성경의 창조와 홍수 기사가 정확하고 권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놀랄 만큼 많은 크리스천 리더들과 교사들이, 하나님은 수백 만년 동안의 진화론적인 과정을 통해 창조를 하셨다고 믿고 있고, 아담과 하와는 원숭이류의 집단에서 유래했고, 전 지구적인 홍수는 없었다고 믿고 있다.

스넬링 박사는 진화론적으로 해석했던 지질기록을 차근차근 조사하여 잘못된 가정들과 결론들을 분쇄해 버린다. 그는 심도 있는 학자적인 연구와 시각으로 지구 역사에 대한 성경적인 지질학 모델을 만들고 창세기 1-11장의 중심적인 주장들이 참됨을 다음과 같이 결론 짓고 있다:



- 하나님은 24시간/일 6일만에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
- 아담과 하와는 실제 인물들이었다.
-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심판으로 완전한 세계를 저주하셨다.
- 노아는 육지에 살며 코로 숨을 쉬는 동물들이 종류별로 쌍으로 탄 방주를 건설했고 노아의 가족과 함께 전지구적인 홍수에서 구원을 받았다.
- 바벨탑에서 언어의 혼잡은 현재 전 세계에서 발견되는 언어 집단들을 만들었다.

이 『지구의 격변적 과거』를 읽은 독자들은 창세기 기록을 실제로, 문자적인 역사로 믿게 될 것이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적용한 과학적 증거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11장에 기록된 우리들의 기원과 역사와 일치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스넬링 박사는 지구의 격변적 과거를 밝혀내기 위해 최선을 다 했다. 깊은 학자적인 식견과 믿음을 가진 분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 준비하신 분이다. 지난 여러 해 동안 세상 조류에 항거하던 저장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을 뿐 아니라 더 견고한 바탕을 세웠다. 지축을 흔들며 하나님을 높였던 책 『창세기 홍수』에서 대략적으로 된 모델들에 수많은 다른 과학자들이 이론 업적들을 첨가하였다.

그는 성경의 무오성에서 시작하여 지질학으로 깊이 들어간다. 앞에서는 홍수의 격변적 성격과 전지구적인 면에 대해 성경적으로 주의 깊게 연관을 시킨다. 홍수와 노아 방주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들에 답을 한다. 이런 확실한 기초에서 시작해서 지질학의 세계로 조심스럽게 들어간다.

지난 기간은 지질학의 혁명기였다. 창세기 홍수가 큰 영향을 미친 것이다. 200 년 간의 지루한 동일과정설의 억압에서 많은 지질학자들은 이제 지구를 설명하기 위해 역동적인 격변과정을 택하게 되었고, 그 결과 수많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데이터가 생겨났다. 수많은 지역적인 격변들을 관찰한 결과 우리들의 생각이 크게 넓어져 보지 않았던 전지구적인 격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우리는 더 큰 지질학적인 사상이 재조정되려는 시점에 서있는데 이 논문이 그 혁명의 한 부분을 감당할 것이 확실하다.

존 모리스(Dr. John Morris)/ ICR 소장

출처: 『지구의 격변적 과거 (Earth's Catastrophic Past)』 서문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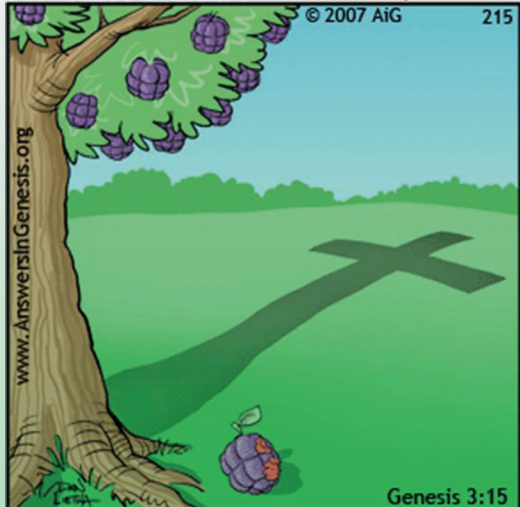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8

AFTER EDEN

by Dan Lietha

© 2007 AiG

215





세계관 전쟁 10

사람:

꼬리없는원숭이에서 진화된 동물인가?(3)



H. erectus 뇌(1200 cc)는 현대인(평균 1400 cc)임.
왼쪽은 원숭이(400 cc)

원숭이

에서 사람으로 진화했다는 증거를 화석에서 찾고자 하는 노력들 중의 하나가 신체 구조를 비교하는 것이다. 지난 호에서는 치아를 비교하여 사람과 원숭이를 구별하려는 잘못된 노력으로 거짓된 유인원 네브라스카인을 만들기도 한 사실을 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두개골과 다리 뼈로 조상이나 후손을 판단할 수 없음을 알게 될 것이다.

두개골 뇌를 싸고 있고 상상력이 풍부한 미술가들의 도움을 받으면 우리 조상의 얼굴 상상을 그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두개골은 가장 흥미 있는 영장류 화석이다. 비슷한 점들이 있기는 하지만, 현존하는 꼬리없는원숭이와 사람 두개골은 쉽게 구별된다. 사람은 꼬리없는원숭이에 비해 비교적 뇌 용량이 크기 때문에 두개골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사람 성인의 뇌 크기는 거의 3 배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뇌 크기 차이는 사람의 지성 정도와는 상관이 없다. 다 자란 꼬리없는원숭이의 뇌는 일반적으로 가장 작은 사람의 뇌보다 작고 지능 정도는 물론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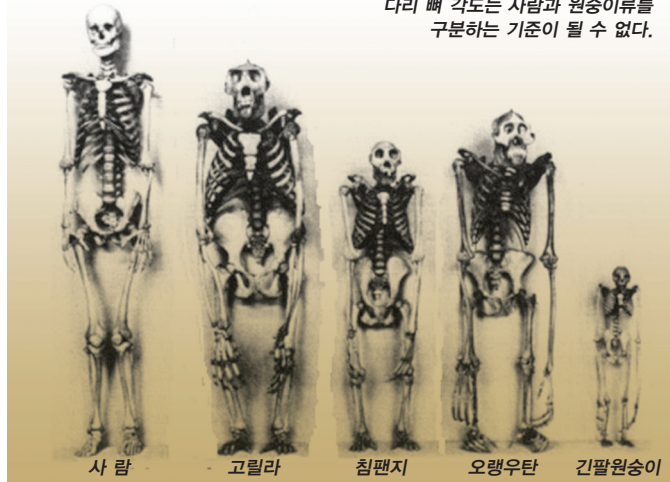
꼬리없는원숭이의 두개골과 사람의 두개골을 가장 잘 비교하는 방법은 옆 모양을 조사하는 것이다. 옆에서 보면 꼬리없는원숭이의 얼굴은 위에서부터 턱으로 내려갈수록 앞으로 내민 경사를 보이지만 사람의 얼굴은 거의 수직이다. 옆에서 보면 꼬리없는원숭이의 안와(eye socket, orbit)는 넓고 평평한 위쪽 얼굴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다. 반면에 얼굴과 이마가 큰 곡선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안와가 측면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사람 두개골의 또 다른 특징은 안경을 지탱하는 코 뼈다. 꼬리없는원숭이는 앞으로 튀어나온 코 뼈가 없으므로 안경을 쓰는데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다리 뼈 원인(hominids) 화석에서 가장 열심히 찾고자 하는 증거는 두 다리로 걸을 수 있

는 능력(bipedality)을 보여줄 해부학적 특징이다. 사람이 두 다리로 걷기 때문에 꼬리없는원숭이 화석에서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능력이 보인다는 것은 진화론자들에게는 인류 진화에 대한 강력한 증거로 여겨진다. 그러나 꼬리없는원숭이가 두 다리로 걷는 방법과 사람이 두 다리로 걷는 방

다리 뼈 각도는 사람과 원숭이류를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법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사람의 독특한 보행은 엉덩이, 다리, 그리고 발에 있는 많은 골격과 근육들이 함께 복합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따라서 진화론자들은 혹시나 두 다리로 걷는 능력을 시사하는 어떤 해부학적인 특징이 있을까 하여 꼬리없는원숭이 화석의 엉덩이뼈(pelvis), 허벅지뼈(femur), 다리뼈(tibia와 fibula), 발뼈들을 세밀하게 조사한다.

진화론자들은 허벅지뼈(femur)와 정강이뼈(tibia)가 무릎에서 만나는 각도(carrying angle이라 함)에 특별한 관심을 갖는다. 사람은 걸을 때 자신의 몸무게를 발에 실을 수 있는데 허벅지뼈가 무릎 쪽으로 가서 정강이뼈와 약 9도의 각도를 이루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일종의 안짱다리를 가지고 있다). 반면에, 침팬지와 고릴라는 넓게 분리된 곧은 다리를 가지고 있어 근본적으로 각도(carrying angle)가 0도다. 이런 동물들은 걸을 때 “원숭이 걸음”에서 보듯이 몸을 양 옆으로 움직여서 자신의 몸무게를 발에 싣게 된다.

진화론자들은 사람처럼 각도가 큰 꼬리없는원숭이 화석들이 두 발로 걸었고 인류로 진화했을 것으로 추측한다. 꼬리없는원숭이 같은 어떤 오스트랄로피테신(Australopithecine)은 우리들처럼 걸었을 것으로 생각되어 우리들의 조상이라 생각하는데 그들이 큰 무릎 각도를 갖고 있는 것이 주된 이유다. 그러나 큰 무릎의 각도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나무 가지 위에서 우아하게 걷는 현대의 꼬리없는원숭이도 큰 무릎 각도를 갖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땅 위에서는 어색하게 걸을 수 있을 뿐이다.

오랑우탄이나 스파이더 멧기(spider monkey)를 포함해서 사람만큼 큰 무릎 각도를 가진 현존하는 꼬리없는원숭이들이 있다. 그러나 이들은 나무 오르기가 뛰어나지만 땅에서는 단지 두 발로 원숭이 걸음걸이를 할 수 있을 뿐이다.

진화론자들이 두 발로 걷기의 결정적인 증거일 것으로 생각하는 해부학적 특징들을 똑같이 가지고 나무에 사는 현존하는 꼬리없는원숭이들과 다른 원숭이들이 있지만 그 어떤 동물도 사람처럼 걷지 못하고 누구도 그들을 우리들의 조상이나 후손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 요점이다.

7차 유학생 탐사여행

1/4 - 1/6, 2010

편집되지 않은 간증문은 홈 페이지 “ACT 간증”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후원해 주신 순복음 라스베이거스 교회와 하나님께 많은 감사와 찬양이 있었음을 밝혀 둡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성경에 나오는 그 분이 과연 온 우주의 창조주인가 하는 문제는 오랜 시간 동안 저에게는 해결되지 않는 숙제였습니다. ... 복음은 내가 선포해야 될 것이지 사람들에게 변증해야 할 것이 아니란 생각, ... 창조과학이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생각, 그리고 창조과학이 무너지면 세상이 얼마나 교회를 공격할까 ... 그런데 이제만 선교사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 이것이 정말 사실이며 역사이구나 하는 ... - 홍의진, *U. of Illinois, 샴페인 어바나 한인 장로교회*

“나는 이미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믿고 있으니 꼭 갈 필요가 있을까” ... 진화가 틀리고 창조가 맞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빅뱅 이론, 지구의 나이, 화석 등은 여전히 사실임을 믿고 있었고 그것이 성경을 반대하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 그 진화론이 얼마나 교회와 세상에 대단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지 알게 되면서 ... - 김보혜, *U. of Illinois, 샴페인 어바나 한인 장로교회*

저에게는 이번 탐사여행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는 시간이었습니다. ... 모든 진리는 성경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미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답을 주신 것을 알았습니다. 앞으로 저는 잘 읽지도 않았던 성경을 읽으면서 저 혼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생기길 소망하고 기도 드립니다. ... - 김성모, *Michigan State Univ. 랜싱 새소망 침례교회*

... 많은 기대를 하고 왔습니다. 탐사여행이 시간이 흐를수록 기대했던 것 이상의 것들로 저에게 남겨졌습니다. “처음이 좋았다” 라는 말이 저에게 이 세상을 다시 볼 수 있는 시각을 주었으며, 하나님의 창조의 때가 더욱 더 보고 싶어졌습니다. ... 30년이란 시간 동안 진화론의 틀에 갇혀 살았다는 것이 얼마나 허무했는가 다시 생각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 - 배지현 전도사, *사우스 웨스턴 침례교 신학교, 달라스 한우리 침례교회*

... 우리의 믿음에서 창조를 뺄다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보니 정말 끔찍합니다. 나의 믿음에 탐사여행이 끼친 영향을 생각해 보면 흐뭇합니다. 당장 돌아가서 이 기쁜 소식을 나눌 생각을 하니 답대해집니다. ... “나를 지으신 주님” 찬양을 더 큰 감동으로 찬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 김민성, *University of Kansas, 로렌스 한인장로교회*

저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로 궁금해졌습니다. ... 이번 탐사여행을 통해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보는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나를 부르실 때 순종함으

로 사용 받고 싶습니다. ... - 송지현, *University of Kansas*, 로렌스 한인장로교회

나를 알아가는 특별한 기회였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회복하고 돌아옵니다. ... “창조과학”이라는 너무나 사실적인 주제 가운데 저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기쁨과 감사함을 느끼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또한 느낄 수 있었습니다. ... - 윤지원, *University of Kansas*, 로렌스 한인장로교회

... 그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놀랍게 풀어졌습니다.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진화가 잘못되고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앞으로 제가 해결해야 할 과제도 찾게 되었습니다. 이 사역은 너무나 귀한 사역이고, 이 사역을 후원하시는 교회가 정말 귀하고 감사합니다. 새롭게 창조자를 만난 느낌입니다. - 박경진 전도사, 고든콘웰 신학교, 올바니 한인교회

증거를 요구하는 시대,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 이번 탐사여행을 통해 확실한 증거를 얻었습니다. 성경의 모든 선포가 분명한 사실임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너무나 귀한 증거를 얻었습니다. ... - 손부영 목사, 고든콘웰 신학교, *Grace Chu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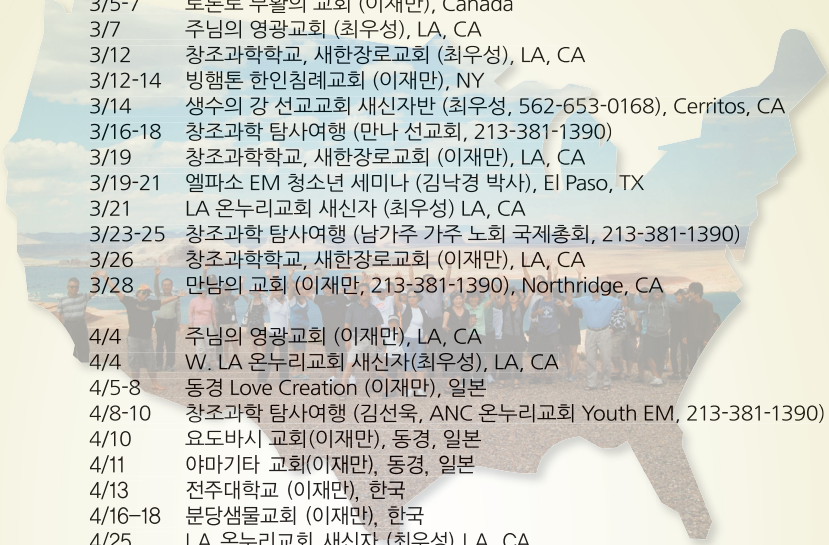
지질학과 학생으로 한국에서 공부하면서 매일 매일이 의문이었는데 ... 결국 유신론적 진화론에 빠졌던 제 생각이 바뀌어졌습니다. ... 주님이 저에게 예비하신 길을 위해 기도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진화론적 믿음을 가진 친구들에게도 알려서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은 용기가 생겼습니다. ... - 김가람, 한국 전남대학

...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화론적 지질학을 한다는 사실은 제 삶 속에서 느껴지는 가장 큰 혼란이었고 그만큼 방황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때 이재만 선교사님의 “창조과학 콘서트” 책을 접하고 창조과학을 알게 되었고 ... 땅을 통해 증거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감격했습니다. 지질학이라는 학문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나타내는 복음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사실은 저를 움아 매던 혼란스러움을 끊어주고 더불어 기쁨 베푸는 전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 비전을 갖게 해주는 기회,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됨에 더욱 감격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 윤지영, 한국 충남대학, 강경 중앙장로교회

단지 짧은 여행을 즐기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탐사여행을 참가한 후에 저의 마음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창조자 되신 하나님과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성경이 진리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창조자 되신 하나님, 직접 눈으로 그 증거들을 확인하는 순간마다 저의 마음과 두 눈에는 감격의 눈물이 맺혀 있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유학생들에게 너무나 큰 선물이었습니다. - 손세종 목사, *Liberty Seminary*, 린치버그 한인침례교회

기대 이상으로 이재만 선교사님과 창조과학선교회의 사역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는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시원케 하는 시간이었다고 감히 고백합니다. ... 예수 그리스도의 피복음을 가장 진하게 전달할 수 있겠구나 하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 - 박찬영 목사, *Liberty Seminary*, 사랑 한미침례교회

2010년 ACT Schedule

- 
- 3/2-6/15 베데스다대학교 강의(최우성), Anaheim, CA
 - 3/4 CNH Bible Study Group (Thomas Yi, 630-887-2390), Burr Ridge, IL
 - 3/5 창조과학학교, 새한장로교회 (최우성), LA, CA
 - 3/5-7 토론토 부활의 교회 (이재만), Canada
 - 3/7 주님의 영광교회 (최우성), LA, CA
 - 3/12 창조과학학교, 새한장로교회 (최우성), LA, CA
 - 3/12-14 방햄튼 한인침례교회 (이재만), NY
 - 3/14 생수의 강 선교교회 새신자반 (최우성, 562-653-0168), Cerritos, CA
 - 3/16-18 창조과학 탐사여행 (만나 선교회, 213-381-1390)
 - 3/19 창조과학학교, 새한장로교회 (이재만), LA, CA
 - 3/19-21 엘파소 EM 청소년 세미나 (김낙경 박사), El Paso, TX
 - 3/21 LA 온누리교회 새신자 (최우성) LA, CA
 - 3/23-25 창조과학 탐사여행 (남가주 가주 노회 국제총회, 213-381-1390)
 - 3/26 창조과학학교, 새한장로교회 (이재만), LA, CA
 - 3/28 만남의 교회 (이재만, 213-381-1390), Northridge, CA
 - 4/4 주님의 영광교회 (이재만), LA, CA
 - 4/4 W. LA 온누리교회 새신자(최우성), LA, CA
 - 4/5-8 동경 Love Creation (이재만), 일본
 - 4/8-10 창조과학 탐사여행 (김선옥, ANC 온누리교회 Youth EM, 213-381-1390)
 - 4/10 요도바시 교회(이재만), 동경, 일본
 - 4/11 야마기타 교회(이재만), 동경, 일본
 - 4/13 전주대학교 (이재만), 한국
 - 4/16-18 분당생물교회 (이재만), 한국
 - 4/25 LA 온누리교회 새신자 (최우성) LA, CA
 - 4/27 전주대학교 (이재만), 한국
 - 5/2 주님의 영광교회 (최우성), LA, CA
 - 5/3-7 창조과학 탐사여행 (대전 온누리교회, 213-381-1390)
 - 5/12-14 창조과학 탐사여행 (WEMA, 213-381-1390)
 - 5/17-19 창조과학 탐사여행 (글로벌 선교교회 실버회, 213-381-1390)

● 다른 일정은 웹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원 Sponsorship

창조과학 선교회는 초교파 선교단체로서 여러분의 후원으로만 운영됩니다. 창조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기를 바라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실 분들은 미국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로 등록되어 있는 ACT(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로 후원금이 입금되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홈페이지(www.HisArk.com)를 방문하시면 온라인으로 후원이 가능합니다.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ayable to : ACT



창조과학선교회 |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한국창조과학회 미주지부)

Mailing address | 3010 Wilshire Blvd. PMB 578, Los Angeles, CA 90010
Office Address | 152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15
Tel. 213 381 1390 www.HisArk.com / hisark@gmail.com